

미 국  
NRC

# 原發許認可審査 3개월만에 再開

## 新規로 器機追加, 許認可審査, TMI의 教訓 參考

미국 원자력 規制위원회 (NRC)의 덴돈 원자로 규제 국장은 許認可심사 재개에 관한 見解를 覚書의 형태로서 명백히 하고 있었으나 이것에 이미 NRC는 22日 심사를 재개할 방침을 결정하였다.

「許認可에는 TMI사고에서 문제가 된 “氣泡”를 고려해서 「가스 드레인 장치의 추가를 조건으로 한다」등이 작성의 내용이였다. 7월에 원자로 규제국의 타스크·후오스氏에 의해서 정리된 「TMI사고의 교훈은 운전의 개량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發판이 되고 있다. 이로써, TMI원발 사고이래 中止하고 있던 許認可는 3개월만에 재개하게 된다.

해롤드·덴돈 규제 국장은 원자로 규제국의 타스크·후오스의 보고를 중심으로한 여러가지의 TMI사고 조사보고는 새로운 規制指針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하여 그 내용을 작성의 형태로서 제출, 허인가를 시작할 방침을 굳혔다.

덴돈 규제국장의 작성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보류되어 있던 건설과 운전 허인가 업무를 재개한다. 그러나 NRC 참모진의 운전허가 發給에 앞서서 스태프가 평가한 것을 委員도 평가한 다음에 발급한다.

□ 「TMI사고의 교훈은 운전의 改良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보고서 (NUREG-0578)의 지적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NUREG-057이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운전원의 操作 미스에서도 單發的인 경우와 짧은 기간(약 2년 이내)에 되풀이해서 일어났을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되풀이해서 일어났을 사고의 경우는 강제적으로 停止명령을 낼 수 있도록 NRC의 基準 開發局은 NRC 기준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 NUREG-0578이 요구하고 있는 각 플랜트에서 기술 어드바이저의 시프트제를 채택한다.

□ 格納 容器内壓力, 물의 양, 水素의 발생의 3개를 계속하는 計器의 설치를 요구한다.

□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冷却系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가스드레인이 되는 機器를 추가한다.

覚書의 内容中 「기기의 추가」에 대해서는 『운동성을 가지게 한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으며 반드시 모든 原發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원자력 발전소의 許認可를 담당하는 NRC는 TMI사고 이후 사고 처리나 여기에 起因되는 허인가 수속의 개선작업에 사람 손이 동원되어 허인가 作業은 늦

어진다.

NRC內에서도 특히 덴돈원자로 규제 국장을 위시해서 同局의 스태프들은 NRC 通報에 의한 「전력회사의 原發點檢」의 체크나 「사고평가」에 쫓겨서 本來의 규제 업무에 충분히 逮치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그 위에 환경위원회에는 긴급시의 対応計劃이 없는 州의 原發정지나 NRC의 내년도 신규 原發건설 허가예산 삭제(6개월간)의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NRC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5月 21日, 規制스태프가 각각의 업무에 되돌아가서 사고의 交훈을 허인가에서 살려낼 때까지 「허인가 발급을 정지한다」라고 발표. NRC에서는 이때 「발급 정지기간은 적어도 3개월」로 하는 동시에 「TMI사고 交훈을 앞으로의 허인가 과정에 짜 넣을 수 있는 최저의 기간」이라고 說明하였다.

이 NRC 결정으로서 3개월 이내에 運轉를 할 4基, 建設許認可를 기다리던 6基가 직접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80年末에 運轉가 예정되어 있던 켈미 2號 (BWR, 120万kW)가 82年初로 연기, B&W社製에서 이미 發注한 그린우드 2,3號(各PWR, 128万6,000kW)는 90年初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1년 반가량 늦어짐이 확실하다.